

광주·전남 기업만족도 1위 '광주 복구'

기업하기 좋은 곳은 영광군...유통·환경 높은 점수
여수, 산단 등 침체 지난해 전국 1위서 48위로 추락

대한상의 기업환경 평가

광주·전남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기업만족도가 가장 높은 곳은 광주 복구, 기업하기 가장 좋은 곳은 영광군인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전국 228개 지방자치단체와 기업 8800여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2019년 기업환경 우수지역 평가'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광주 자치구 가운데 1위(전국 9위)는 74.1점을 받은 복구가 차지했다. 이어 광산구(73.4점·25위), 남구(70.9점·110위), 동구(69점·177위), 서구(68.5점·186위) 순이었다.

전남에서는 영광군이 73.7점을 얻어 맨 앞(73.7점·16위)에 자리했다. 강진군(73점·33위), 나주시(72.9점·37위), 여수시(72.5점·48위), 곡성군(72.5점·49위) 등이 영광군에 이어 2-5위를 차지했다. 이중 지난해 전국 1위에 이름을 올렸던 여수시는 1년사이에 48계단이나 미끄러졌다.
구례군(65.6점·227위)과 완도군(66.5점·222위)은 가장 낮은 등급인 C등급을 받으며, 전국 하위 10위권에 머물렀다.
광주·전남에서 기업하기 가장 좋은 기초자치단체에는 영광군이 뽑혔다. 지자체 조례에서 공장설립, 주택건축, 유통물류, 환경, 공공계약, 부담금, 지방세징, 도시계획시설, 공유재산 등을 종합평가해 선

■ 광주전남 기업환경 평가상위 10위

※(1)안은 전국 순위

순위	기업체명도	경제활동진화성
1	광주 복구(9위)	영광군(17위)
2	영암군(16위)	나주시(97위)
3	광주 광산구(25위)	광주 남구(101위)
4	강진군(33위)	장흥군(103위)
5	나주시(37위)	보성군(112위)
6	여수시(48위)	목포시(120위)
7	곡성군(49위)	광주 북구(130위)
8	목포시(68위)	여수시(141위)
9	신안군(70위)	곡성군(146위)
10	광양시(72위)	무안군(153위)

(자료:대한상공회의소)

정한 경제활동진화성 순위다. 영광군은 유통물류·환경·공유재산 부문에서 100점(1위)을 받았고, 공장설립(96점·6위), 도

시계획시설(93.8점·22위)도 높은 점수를 얻었다.

나주시(82.1점·97위), 장흥군(81.8점·103위), 보성군(81.4점·112위), 목포시(80.8점·120위)가 영광군을 뒤따랐다. 전남 기초단체 중 꼴찌는 신안군(73.5점·226위)이었다.

광주지역 5개 자치구는 전국 순위에서 모두 100위권 밖으로 나타나 공무원들의 적극 행정이 요구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중 남구(전국 101위)가 81.9점으로 맨 앞에 있고, 이어 북구(80.5점·130위), 동구(78.5점·171위), 광산구(77.1점·191위), 서구(76.7점·199위) 순이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기업환경 우수지역 평가결과가 상황평준화되고 있다"며 "비차별간 경쟁으로 행정은 간편해지고 법체제도 기업친화적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고 분석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

천주교 광주대교구 김희중 대주교 송년 회견

“옛 광주교도소 유골 발굴 계기로 문혀 있었던 진실 밝혀지길 기대”

천주교 광주대교구 김희중 대주교(사진)는 23일 “옛 광주교도소 신원 미상의 유골 발굴을 계기로 그동안 문혀 있던 진실이 밝혀지기를 기대한다”며 “당시 5·18항쟁 피해자로 참여했던 이들의 양심선언이 이뤄져 역사적 진실을 밝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김 대주교는 이날 오전 광주시 서구 천주교 광주대교구청 회의실에서 가진 송년 기자회견에서 이 같이 밝혔다.

김 대주교는 “신원 미상 유골은 현재까지 밝혀진 것은 없지만 그동안 의혹으로 회자됐던 내용이 사실로 드러날 수 있는 실증이 아니겠는가? 라는 생각을 했다”며 “무엇보다 DNA 대조 등 깊이 있는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행불자 시신을 아직까지 찾지 못한 가족들이 적지 않다. 당시 그 일을 했던 사람들의 양심선언을 통해 역사적 진실이 밝혀졌으면 한다”며 “이는 어느 누구를 처벌하는 것이 아닌, 역사적 진실을 밝히는 중요한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주교는 내년 40주년을 맞는 5·18에 대해서도 의견을 피력했다. 이는 5·18 정신의 전국화, 세계화를 위한 구체적인 활동의 중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아시아와 세계 민중화 과정에 있는 나라들과의 공유를 주장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그는 “내년에는 프랑스, 캐나다, 미국, 라틴아메리카 청년들을 초청해 5·



18행사에 함께 하도록 할 계획”이라며 “이들이 자신들의 나라로 돌아가 5·18 정신을 알릴 수 있도록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중단된 남북간 교류와 종교 역할에 대해서도 메시지를 전달했다. 김 대주교는 “주교회의에서는 끊임없이 국제 카리타스를 통해 북측과 접촉을 하고 있고 최근까지도 교류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최근 종교계에서 북측에 만나자는 팩스를 보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순탄하게 진행되면 서울과 평양, 뉴욕에서 남북 기도 모임을 갖자고 제안을 한 상태”라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



고고도 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 한반도 밖까지 본다

구매결정 8년만에 사전공항에...20km 상공서 지상 0.3m 물체 식별

공군의 감시 범위가 북한 전역은 물론 한반도 밖 일부 지역까지로 확장된다.
미국에서 제작되어 공군이 운용하는 고고도 무인정찰기(HUAS) 글로벌호크(RQ-4) 1대(1호기)가 23일 오전 5시경 경남 사천 공군기지에 도착했다. 글로벌호크는 이날 동체에 유도등 3개를 견제로 사천 하늘의 어둠을 가르며 활주로에 조용히 내려 앉았다.

정부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고조되자 2011년 3월 정부 간 계약방식인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으로 미국에서 구매하기로 공식 결정한 지 8년 만에 완성품이 한국에 도착했다. 내년 전반기까지 나머지 3대를 모두 도입해 일정 기간 전력화 과정을 거쳐 실전 배치할 계획이다.
글로벌호크는 20km 상공에서 특수 고성능레이더와 적외선 탐지 장비 등을 통해

지상 0.3m 크기의 물체까지 식별할 수 있는 첩보 위성급의 무인정찰기이다. 한번 떠서 38~42시간 작전 비행을 할 수 있다. 작전반경은 3천km에 달해 한반도 밖까지 감시할 수 있다.

이 정찰기 운용으로 군 당국은 미국에 절대적으로 의존해온 북한 내륙의 영상정보도 독자적으로 수집할 수 있게 됐다. 현재 군은 백두산 인근까지 통신 감청 능력이 있지만, 영상 정보는 평양에서 한참 아래 지역까지만 수집할 수 있다.

주야간은 물론 악천후 기상에서도 지상을 감시할 수 있는 특수 고성능 레이더를 탑재하고 있다. 지상에서 각종 미사일을 탑재하고 이동하는 이동식발사차량(TEL)은 글로벌호크의 감시망에 포착된다.

오는 2023년까지 군 정찰위성 5기까지 전력화되면 감시·정찰 능력은 더욱 배가될 전망이다. 글로벌호크는 날개 길이 35.4m, 전장 14.5m, 높이 4.6m로, 최대 순항속도 250km/h, 중량 1만1천600kg 등이다. /연합뉴스

내년 로컬푸드 직매장 전남 7개소 선정

전남도가 농림축산식품부의 2020년 로컬푸드 직매장 지원 공모사업에서 7개소가 선정됐다. 이번 공모에서는 모두 21개소의 직매장이 정부 지원 대상이 됐다.
로컬푸드 직매장 사업은 중·소농이 생산한 농산물의 안정적 판로 확대와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 농협, 농업법인에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사업자는 부지 적격성, 입지 조건, 직매장 운영계획 등 1차 서류평가, 현장평가, 2차 발표평가를 거쳐 최종 결정됐다.
선정된 사업자는 여수농협, 여수원예농

협, 나주시, 광양동부농협, 화순농협, 장성남면농협, 신안농협이다. 개소당 직매장은 최대 6억원, 로컬푸드복합문화센터(200㎡ 이상)는 최대 10억원을 지원받는다.
신구 지원 로컬푸드복합문화센터는 직매장뿐만 아니라 농가레스토랑, 키즈카페, 공유부엌 등 문화·생활시설을 겸비한 복합 직매장이다. 전남지역에는 현재 로컬푸드 직매장 42개소가 운영 중이다. 11월 말 기

준 매출액은 716억원, 참여 농가는 8096호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김영신 전남도 농식품유통과장은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고, 중소농의 안정적 판로를 확보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겠다”며 “수도권, 광주권 등 대도시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형일자리사업 지역노동계 참여 보장하라”

광주경실련, 광주시에 구체적 답변 촉구

광주시민단체가 광주형일자리 사업에 지역노동계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라고 광주시에 촉구했다.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3일 성명을 내고 “이용성 광주시장과 광주시는 제 1대 투자자로서 진정으로 광주형일자리 성공을 원한다면, 초심으로 돌아가 노동계를 사업의 한 축으로 인정하고 진심을 갖고 소통하라”고 요구했다.

광주경실련은 “광주시와 함께 광주형일자리 한 축인 한국노동광주지역본부가 오는 26일 열리는 (주)광주글로벌모터스의 공장 착공식에 참석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다”며 “(노동계 보이콧) 이유는 광주시의 안이한 대처로 노사상생 정신이 사라졌기 때문”이라고 강조하며 광주시의 역할을 강조했다.

광주경실련은 “광주형일자리 사업에서

노사상생 정신이 사라지면 광주형일자리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기업투자 유치형 일자리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을 향해서는 “이 시장과 광주시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난 9월 (주)광주글로벌모터스의 법인이 설립 될 때 까지는 노동계와 소통하려는 의지를 보였으나 그 이후 3개월 동안은 노동계의 요구에 묵묵한 답으로 일관했다”며 “이는 이시장의 노동관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광주경실련은 광주형일자리 추진에 관한 조례(제2조)에는 ‘노사책임 경영’이 명기돼 있다며 ▲노동이사제 도입 ▲원하청근로 개선 ▲경영진과 노동자 임금의 합리적 격차 마련(노동계는 2배 이내 책정 요구) 등 노동계 요구에 대해 구체적 답변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수수료,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 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 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수수료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산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NAVER 채권추심 회수왕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2-4306

요양병원, 힐링센터 부지/매매

- 풍암동, 화순 전대병원 10분거리
- 현재 한옥식당 및 찜질방
- 계획관리지역 약3000평 (용적율 40% / 100)
- 보존관리지역 약2500평 (편백나무숲, 산책로 조성가능)
- 매매가격 33억5천만원 (용20억포함)

힐링센터 공동투자자 모임

- 개인명의 재산을 법인으로 100% 전환 후 지분 50:50
- 공동대표 등기 후 투자자께서 100% 운영
- 투자금액 13억5천만원 (힐링센터 시설 리모델링 비용)

소유자 : 010-7570-7525
(나주시 남평읍 풍림죽림길 86)

광주시민을 위한~ 2020년 부동산시장 전망과 “완전정복 세미나”

시기가 변하면 투자전략도 변해야 한다.
혼란기시대에 부동산 투자에 성공을 지르는 알찬강의!
2020년 급변하는 환경속에서 효과적인 투자전략을 찾을 수 있는 특강강좌를 개최하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광주권 아파트 전망과 틈새 성공전략

강사 정영수 경영학박사 (부동산마케팅 전공)
- 한국부동산정보연구소장, (사)대한부동산학회 광주, 전남지부장
- 전 전남대 경영연구소 전임연구원, 전남대 20년 부동산강사
- 한국생산성본부(PC) 위촉강사, 공무원연수원 초창강의

- ◆ 일시: 2019년 12월 27일(금) 14시~16시
- ◆ 장소: 광주광역시 서구 차평동 1161-7 5-187년관(주차장 원비)
- ◆ 후 원: (사)한국산업교육원, (주)도담건설
- ◆ 특 전: 참가자 추천 후 정관장 홍삼, 전기스토브, 햄살 등 증정 ※ 선착순 99명 전화접수 마감

전화 062) 376-7605 010-9911-7605

금당공인중개사

저희는 매도·교환·개발 등의 물건을 구입합니다!

투자·매도·교환

- 월산동 통고개역 인접 소방도점 2층 주택 106㎡ 집 112㎡ 공방등 적합 1억4천
- 전원주택 적합 영광군 백수해안도 인근 1130㎡ 전망 좋은 1억3천
- 서구 마북동 도로점 378㎡ 장기투자해 좋은 대지임 5억
- 남구 월산동 월산아파트 부근 664㎡ 주택 124㎡ 4억3천
- 전북 부안군 백산면 소재지 상업지 706㎡ 무인텔 등 적합 교환 가능 2억
- 목포시 외남도(달동) 329평, 638평 투자전망최고 평당 23만원
- 영광군 암산면 신성리 땅 2648㎡ 주택 좋은 전원생활 적합 1억7천
- 함평군 손불면 산남리 땅 9143㎡ 집 67㎡ 귀농생활 적합 2억
- 별장 영산강 부근 나주시 다시면 회진리 땅 450㎡ 건평 110㎡ 매도 2억8
- 나주시 다시면 광목도로 4323㎡ 유통시설·광고·공장 등 적합 6억
- 제주도 서귀포 강정동 3647㎡ 빌라 등 적합 25억 약국용 건물과 교환가능
- 담양군 금성면 석현리 915㎡ 창고·다세대 등 다양도 적합 2억9천
- 남구 덕남동 (수·대용 노인건강타운) 부근 대지 662㎡ 남향 가격조정 가능 5억5천
- 남구 덕남동 산10000㎡ 사할·화가 화실·작가 작품 활동 적합 건물 67㎡ 5억

상가건물

- 백양사내 내장사 사이 추령교개 403㎡ 가게 197㎡ 커피숍·편의점 적합 1억4500
- 서석동 초대말 4층 상가 405㎡ 건물 919㎡ 임대 보증금 6천 월 280, 12억
- 운암동 아파트상가지하 205㎡ 매입 2억 창고 사무실 적합 은행7천 매도 1억6천
- 충장로 47㎡ 261㎡ 건물 1128㎡ 은행 11억 전세 1억8천 월1200 매도 26억
- 농성동 상공회의소 뒤편 소방도점 상가주택 땅 156㎡ 건물 140㎡ 4억2천
- 운암동 아파트 단지 인근 땅 1124㎡ 건물 1733㎡ 전세 7천 월 680 임대 21억
- 유동 신축커피숍 대지 73㎡ 2층건물 30평 시설완비 은행 1억 매도·교환 3억6천
- 북구 임동동 318㎡ 건물 528㎡ 은행 2억3천 매도 6억천

특급물건

- 광산구 북평동 그린벨트 담 3002㎡ 도로점 투자까지 최고임 5억5천
- 목포대부군 청계면 도림리 2중주거지 4413㎡ 강정 5억7천 농협 3억4천 매도 4억6천
- 화순군 동면 사성제 무등산 밑 광주 인근 최고별장지역 은행 2-3억 있는 별장과 상가건물 원룸·대지 등과 교환원, 매도는 5억~7억임
- 구례군 구례읍 서사천(명령면) 11050㎡ 대세대 빌라·요양시설 적합 14억5천

문의 222-4994, 010-2632-5659
서구한천, 농성초교앞문앞